

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

○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.

○사업장에서 퇴직,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.

○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파견직을 제외하고 통상근로자(상용), 기간제근로자,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.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.

○5인미만 사업장이란,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보다 적은 곳으로 사용자(사업주)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‘상시’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5인 미만이라 함은 즉,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되며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.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따르면, 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’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○산정시 소수점 이하, 가령 4.9명이 나오더라도 일단 ‘5인 미만 사업장’으로 봅니다.

예외적으로 5인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전체 근로일수의 50%를 넘지 않는다면,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. 주말이나 휴일에 소수 근로자를 출근시켜 상시근로자 수 평균치를 낮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
○출산휴가, 육아휴직, 정직,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.

○사업장에 있는 동거친족이라고 하여 모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.